

# CSE NEWSLETTER

@ PNU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뉴스레터

여름호(통권 제7호) 2014년 6월 1일

발행처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발행인 이도훈 발행일 2014. 6. 1.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컴퓨터공학관(201) 6410호 | 051-510-1436 |  
홈페이지 <http://www.cse.pusan.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nucse>

03 교수 동정 칼럼 (김경석 교수)

##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차별에 찬성하는 20 대와 우리 사회

[칼럼] 김경석 교수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사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면서도 갑자기 정규직 하겠다고 떼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오 찬호님이 지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책에는, 위의 주장과 비슷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어떤 글도 나와 있다. ".....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공사 들어가기 엄청 어렵습니다. 남들 몇 년씩 어렵게 준비해서 토익 900점 넘기고 어렵게 공사 들어가는데 ..... 정직원을 넘보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볼 수 있죠? 노력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승무원 여러분들은 철도공사 정직원이 되고 싶으시면 시험을 치고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컴퓨터 아닌 얘기를 하고자 한다. 2008년 장기 파업했던 KTX 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인권과 평화라는 강의를 들던 어떤 대학생의 말.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요즘 읽었던 여러 권의 책 가운데 위의 책이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아 우리 학부 학생들에게 소개하겠다. 이 책은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하는 지은이 오 찬호님이 대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숙제를 꼼꼼히 읽어보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한 뒤 쓴 책이라, 대학생들이 아주 친근하게 느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이 글쓴이에게는 대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대학생들은 "우리 대학생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걸 굳이 책으로 써?"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글쓴이에게는 전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따라서 충격적이다. 책 지은이도 학생들의 생각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취업은 어렵고, 수명은 늘어나는데 직장에 겨우 들어가더라도 예순 몇 살까지의 장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직해야 하며, 또한 현재의 이런 어두운 상황이 앞으로 도 쉽사리 밝아지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아픔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유독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20 대들의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듯하고, 따라서 그 전의 세대와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20대들은 남의 아픔에 같이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다.

"너만 열심히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 "젊은 때는 원래 힘들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하면 돼" —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20 대들에게 글쓴이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며, 젊을 때 고생한다고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널리 유행하는 "힐링"도 실제로는 20 대의 마음을 제대로 고쳐주지 못 한다고 본다.

옛날에 건주어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 간다. 1960 ~ 1970 년대에는 "대학생"이라는 말 속에는 "공부는 별로 하지도 않고, 놀 놀기만 한다."는 뜻이 살짝 담겨 있었다. 빈둥빈둥하는 사람을 보고 "대학생이네"라고 말하곤 했으니까. 실제로 1 ~ 2 학년 때에는 열심히 노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은 1 학년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 1990 년대까지만 해도 전공 공부를 지금보다는 훨씬 열심히 했으며, 그게 바로 취업 준비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전공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 수준만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영어 공부 등 취업 준비에 아주 열심히 한다.

그 책에 보면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개인이 좀 잘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해주는 게 이십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어려함에도 오늘날 이십대들에게는 그런 논리 구조가 없다. …… 그것을 거부하는 논리 구조가 있을 뿐. ……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를 계발하라"라고 나온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스스로 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거라고 짐작해본다.

이제 책 제목에 나온 "차별에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20 대가 차별에 찬성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노력은 하지 않고 요구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기 계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자격이 모자라고, 따라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보기를 들어, 현재의 교수는 시간 강사라는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서 교수가 되었으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교수도 많다!), 현재 시간 강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며,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20 대는 "엄격한" 대학교 서열에 따라서,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보다 서열이 위인 대학교 학생에게는 주눅 들고, 서열이 아래인 대학교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차별한다는 것이다. 20 대는 피해자이면서도 또한

가해자라는 것이다. 능력보다는 학벌이 아주 중요하며, 엄격한 대학교 서열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고 찬성한다는 것이다.

20 대와 다르게 생각하는 책 지은이는 20 대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룬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20 대가 지은이의 분석과 생각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책의 내용은 허황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 지은이는 자기 계발을 권하는 사회를 치유하자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부분을 읽고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요즘 우리 학부에도 수업 시간에 운동복(야구 잠바)을 입고 있는 학생이 참 많아졌다. 책에서는 대학교 운동복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는데 참 재미있다. 운동복 입고 수업에 들어오는 학부 학생들이,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으니, 책을 빌려서 운동복 부분만이라도 꼭 한 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책의 154 ~ 165 쪽).

김경석 교수(E-mail : gimgs0@gmail.com)

\* \* \*

<http://www.cse.pusan.ac.kr>, <https://www.facebook.com/pnucse>

// 부산대학교 정보 컴퓨터 공학부 뉴스레터, 2014.06.01.(여름호, 통권 제 7 호)에 3 ~ 4 쪽에 실린 김 경석 교수의 글 부분만 뽑아낸 파일이다.

- 참고로 위의 뉴스레터(PDF)보다 혹시 읽기가 더 쉬울까 하여 아래에 원래 아래아 한글 (HWP) 파일의 원고를 덧붙인다.

\* \* \*

##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 차별에 찬성하는 20 대와 우리 사회

컴퓨터 아닌 얘기를 하고자 한다. 2008 년 장기 파업했던 KTX 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인권과 평화라는 강의를 듣던 어떤 대학생의 말.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사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면서도 갑자기 정규직 하겠다고 떼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오 찬호 님이 지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책에는, 위의 주장과 비슷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어떤 글도 나와 있다. "...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공사 들어가기 엄청 어렵습니다. ... 남들 몇 년씩 어렵게 준비해서 토익 900 점 넘기고 어렵게 공사 들어가는데 ... 정직원을 넘보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볼 수 있죠? 노력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승무원 여러분들은 철도공사 정직원이 되고 싶으시면 시험을 치고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요즘 읽었던 여러 권의 책 가운데 위의 책이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아 우리 학부 학생들에게 소개하겠다. 이 책은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하는 지은이 오 찬호 님이 대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숙제를 꼼꼼히 읽어보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한 뒤 쓴 책이라, 대학생들이 아주 친근하게 느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이 글쓴이에게는 대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대학생들은 "우리 대학생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걸 굳이 책으로 써?"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글쓴이에게는 전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따라서 충격적이다. 책 지은이도 학생들의 생각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취업은 어렵고, 수명은 늘어나는데 직장에 겨우 들어가더라도 예순 몇 살까지의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직해야 하며, 또한 현재의 이런 어두운 상황이 앞으로도 쉽사리 밝아지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아픔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유독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20 대들의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듯하고, 따라서 그 전의 세대와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20 대들은 남의 아픔에 같이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다.

"너만 열심히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 "젊은 때는 원래 힘들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하면 돼" --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20 대들에게 글쓴이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며, 젊을 때 고생한다고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널리 유행하는 "힐링"도 실제로는 20 대의 마음을 제대로 고쳐주지 못 한다고 본다.

옛날에 건주어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간다. 1960 ~ 1970 년대에는 "대학생"이라는 말 속에는 "공부는 별로 하지도 않고, 놀 놀기만 한다"는 뜻이 살짝 담겨 있었다. 빈둥빈둥하는 사람을 보고 "대학생이네"라고 말하곤 했으니까. 실제로 1 ~ 2 학년 때에는 열심히 노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은 1 학년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 1990 년대까지만 해도 전공 공부를 지금보다는 훨씬 열심히 했으며, 그게 바로 취업 준비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전공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 수준만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영어 공부 등 취업 준비에 아주 열심히 다.

그 책에 보면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개인이 좀 잘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는 ... 요구를 지지해주는 게 이십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러함에도 오늘날 이십대들에게는 그런 논리 구조가 없다. ... 그것을 거부하는 논리 구조가 있을 뿐. ...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를 계발하라"라고 나온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스스로 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거라고 짐작해본다.

이제 책 제목에 나온 "차별에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20 대가 차별에 찬성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노력은 하지 않고 요구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기 계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자격이 모자라고, 따라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보기를 들어, 현재의 교수는 시간 강사라는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서 교수가 되었으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교수도 많다!), 현재 시간 강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며,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20 대는 "엄격한" 대학교 서열에 따라서,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보다 서열이 위인 대학교 학생에게는 주눅 들고, 서열이 아래인 대학교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차별한다는 것이다. 20 대는 피해자이면서도 또한 가해자라는 것이다. 능력보다는 학벌이 아주 중요하며, 엄격한 대학교 서열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고 찬성한다는 것이다.

20 대와 다르게 생각하는 책 지은이는 20 대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룬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20 대가 지은이의 분석과 생각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책의 내용은 허황된 말 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 지은이는 자기 계발을 권하는 사회를 치유하자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부분을 읽고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요즘 우리 학부에도 수업 시간에 운동복(야구 잠바)을 입고 있는 학생이 참 많아졌다. 책에서는 대학교 운동복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는데 참 재미 있다. 운동복 입고 수업에 들어오는 학부 학생들이여,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으니, 책을 빌려서 운동복 부분만이라도 꼭 한 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책의 154 ~ 165 쪽).